

교회 목표

신랄한 예배
찬국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진홍운 편집: 양재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오늘,
2011년 제7차 성찬식
(1~5부예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히 12:2). 이 말 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시작이며 끝이며 한마디로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011년 연말을 향해가는 중요한 시점인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11월 18일, 금요찬양집회 시 온 성도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추수감사 찬양축 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리해야 할 것, 새롭게 준비해야 할 것 등 등 많은 것들로 분주한 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 작하고 십자가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시에 있을 2011년 마지막 성찬식은 은총의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기 념함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11 월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망이십니다!

금요찬양집회 교구좌석 변경 지난 11월 4일(금)부터 실시

금요찬양집회 시 교구별 좌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말씀과 찬양의 은혜로 풍성한 금요찬양집회가 되도록 더욱 기도하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수감사 찬양축제를 위한 찬양과 오케스트라 연습이 진행 중이니 성도님들 은 금요찬양집회 때 악기를 가지고 오셔서 함께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집회 후에는 위임목사님의 지도로 악기별 연습이 진행 중이니 성도님들의 적 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좌석 변경 안내 본지 7면

메시아의 죽음 96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자신을 잡으려 온 무 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또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 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막 14:49). 동일한 상황을 두고 각 복음서는 서로 약간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마태복음을 보면 "너희와 함께"가 빠져 있고(마 26:55), 마가복음은 두 개의 절에 걸쳐 설명한 내용을 한 구절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누가는 이 사건을 조금 더 다르 게 묘사하였다. 우선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을 잡으려 온 사람들을 "무 리"라고 기술한 반면, 누가는 무리가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 들과 장로들"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눅 22:52). 또한 "내가 날마다 너희 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눅 22:53)는 말씀처럼 더욱 구체적으로 밝혔다.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라는 말씀에 대해 사 도 요한은 아예 전혀 다른 상황에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였다. 마가, 마태, 누가는 예수님이 갓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라 기록하였는 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종교지도자들에게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오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 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냐라"(요 18:20~21). 또한 예수님이 대략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 방문하지 않았기 때 문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말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복음서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이와 같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동일한 상황에 대한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 에 앉아 가르쳤으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각 복음서에 따라 약간 다 르거나, 요한복음처럼 전혀 다른 상황에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기까 지 하였다. 3년간의 공생애 중 예루살렘 성전을 몇 번 방문했는가에 대한 차이도 있기 때문에 "날마다"라는 표현에도 논쟁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각 각의 상황에서 각 복음서의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받 으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예수 님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특히 종교지도자들도 날마다 복음 을 들었음에도 이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수님은 3년 내내 오직 천국 복음만을 선포하셨다. 이때 많은 무리 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5:1-2, 13:2; 눅 21:37~38). 예수님은 무리를 사랑하셨기에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 굴로 만드는 무리를 찾아낸 후,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을 가르치셨지 만, 이들은 여전히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다(막 11:11,15,17,27). 이들의 관심은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었기 때문이다(막 14:1-2). 따라서 종교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와 율법, 전통과 유전에 도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들었지만, 매번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 (눅 19:47~48, 20:5).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 의문만 을 품었다(막 12:13).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모든 교 만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게로 가까이 나아가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닫고 오묘한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아멘.

*매주 월요일오전10시(매주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YOUR ATTITUDE

⁽⁵⁾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⁶⁾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

*⁽¹⁰⁾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¹¹⁾and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Philippians 2:5-11)*

Attitude is typically reflected in behavior. How we think defines who we are, and is usually displayed by how we act. The way we deal with other people really depends upon their actions. We tend to judge others based upon their verbal and physical expressions. Although we can't read people's minds completely, we are actually pretty good at figuring out what they're thinking or feeling based upon their conduct. Of course, this isn't always the case. Take for example people who say one thing but do another. The Bible tells us that such double-minded people are "unstable" in all their ways (Jam. 1:8). Today's Bible verses teach us that we should have the same kind of humble attitude as Jesus. What is Jesus' way of thinking? Jesus' mind-set is always centered on God's point of view, which makes His humility pure and righteous.

Jesus calls to the world,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Mt. 11:28-29). You need to answer this call! Only Jesus has the very things your soul needs. We are all born sinfully selfish, and until we accept Jesus Christ as our Savior by faith we cannot begin to imitate His manners. Jesus knows what your needs are and He alone is graciously able to provide them. Paul describes how Christians should imitate Christ in Romans 15:1-3, "We who are strong ought to bear with the failings of the weak and not to please ourselves. Each of us should please his neighbor for his good, to build him up. For even Christ did not please himself but, as it is written: 'The insults of those who insult you have fallen on me.'" Without Jesus, our way of thinking is sinfully self-centered, not God-centered. Our conduct can only be controlled by the Word of God, which commands us, "Do not love the world or anything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For everything in the world—the cravings of sinful man, the lust of his eyes and 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comes not from the Father but from the world. The world and its desires pass away, but the man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1 Jn. 2:15-17). Why not love the world? Why not love the things in the world? Loving the world and the things in it is the opposite of doing the will of God. The Bible simply teaches us to love God, not earthly things.

Letting Jesus control your heart changes your position. 2 Corinthians 5:15-17 say, "And he died for all, that those who live should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for them and was raised again. So from now on we regard no one from a worldly point of view. Though we once regarded Christ in this way, we do so no longer.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Jesus died on a cross for your sins. He asks you to live for Him, not for your flesh. He changes you. Your way of thinking is finished when you follow Jesus, and His way of thinking takes hold, "For God did not give us a spirit of timidity, but a spirit of power, of love and of self-discipline" (2 Tim.

1:7). You can look at earthly people and not be scared, but rather want to help save them. Paul instructed the Philippian church to have hearts like Jesus. The most valuable thing to the world is earthly treasures, but as a Christian you know the most valuable thing is Jesus Christ. Romans 7:24-25 say,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Thanks be to God—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So then, I myself in my mind am a slave to God's law, but in the sinful nature a slave to the law of sin." Jesus changes your very nature and sets you free. This is real! Jesus truly changes your life,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Rom. 8:2). If you try and live by your own means, you'll find trouble. This situation is so sad and frustrating, and many people end up committing suicide, hurting others, or living in constant depression. If you live in Christ, you'll find freedom and peace. Oh, give thanks to the Lord and praise Him forever and ever.

Obedying Jesus with faith changes your way of behaving. Jesus and the Father are one. When you listen to the Father, you listen to Jesus. Jesus became incarnate when He left heaven for this earth,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bu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death—even death on a cross!" (Phil. 2:6-8). Jesus took God's way to save the people of this earth. How lovely is that? He became the sacrifice needed for our salvation,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Jesus shows us God's way. He even revealed the way to heaven, "Therefore God exalted him to the highest place and gave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and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Phil. 2:9-11). If you follow Jesus, then He will lead you to the kingdom of God. Hallelujah! Whoever is born again in Christ will overcome this earth, "for everyone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 even our faith. Who is it that overcomes the world? Only h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1 Jn. 5:4-5). If you believe Jesus is the Son of God, you will overcome all obstacles and have victory.

Dear my friend, how much suffering are you enduring? Living in this world with the responsibilities of work, family, and basic survival is challenging. You can find comfort, peace, and true victory in Jesus. What kind of attitude do you have? If you give up your way of thinking and submit to Jesus and obey His commands then you will have ultimate victory and surely go to the kingdom of God. Isn't that something to be truly thankful for? Please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Jesus all the way to heaven. Amen. 

여러분의 마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5~11)



김성필 목사

여러분의 마음은 보통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며, 또 그 사고방식은 통상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기초하여 남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을 완벽하게 읽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기초하여 그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아주 잘 파악합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모든 일에 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막 1:8).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겸손을 순수하고 외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자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 11:28~29). 여러분은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뿐인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났기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품행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오직 주님만이 은혜로 그것들을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1~3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사고방식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죄뿐인 자기 중심이 됩니다. 이런 우리의 행위는 오직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제어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5~17).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칠 뿐입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지

예수님이 다스리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의 신분이 변합니다. 고린도후서 5:15~17은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어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육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름으로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끝나고 주님의 사고방식이 여러분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딤후 1:7). 그 때에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돕고 싶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땅의 보물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24~25은 말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님은 본성 자체를 변화시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2). 그럼에도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 애를 바둥 댔던바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슬프고 실망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자살하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혹은 계속 갇힌 삶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자유와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오,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시다.

믿음으로 순종하자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의 행동방식이 바뀝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하늘 가는 길까지 밝혀 드러내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9~11).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거둔다 자마다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요일 5:4~5).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여러분은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일, 가정 그리고 기본적인 생존의 짐을 지고 세상을 사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평안, 평화 그리고 참된 승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예수님께 항복하여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죄의 승리를 얻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재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좇아 천국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2011년 제3차 청지기훈련

죽·석·인·터·뷰 (청지기훈련이 끝나자마자 만났습니다)

1. 누구랑 오셨나요?
2. 오늘 기억에 남는 말씀은?
3. 나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 21교구 박경진 집사

1. 친정 어머니와 아기(영아부)와 함께 왔다.
2. 교회에 와서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외식하고 때로는 주변 환경이나 교회의 잘못된 점을 보고도 있었다. 순수하게 복음만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3. 결혼 전에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나 지금은 급료창설이나 청지기훈련 때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해서 잘 못 듣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분주한 가운데 듣는 것도 은혜이고,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복음은 내 상황이나 내 환경에 상관없이 늘 나에게 임이 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15교구 김은자 집사

1. 딸(이소정 성도)과 손녀(이사랑)와 함께 왔다.
2. (기)복음을 가져들으라는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보려던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었다. (이)복음을 듣기 원하는 자에게 더 많은 복음의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에게 주님을 더 많이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들려 주었다.
3. (기)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무엇보다 삶 가운데 말씀을 감당하며 자라 들을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내가 되어야 하겠다. (이)아기를 낳고 기르느라 교회에 오랜만에 어머니의 권유로 나오게 되었다. 간만에 교당에 온 듯한 편안함 기분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말씀들은 그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있던 것들이 생각나게 했다. 이렇듯 내가 주님께 다가가 때 주님은 나에게 해답을 주신다는 것을 느꼈기때문에 앞으로 더욱 주님께만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겠다.



♥ 19교구 정경호 성도와 초대로 타 교회에서 온 안태옥 권사, 김장아 성도

1. 머느리와 함께 왔다.
2. (안)예아렘으로 예아렘을 받는다. 회개해야 한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다. 이 말씀들은 마치 나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듯하여 마음에 새겨졌다. (김)처음 들어갈 때 보이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가리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죄가 많은 나는 당장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다. 또 예배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말라는 그 말씀은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듯해서 마음속이 들뜬 것 같아 참뻘었다.
3. (안)속에서 누군가를 판단할 때, 아니 판단한다는 자체가 잘못이지만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만으로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불어 그런 예아렘보다는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기 때문에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길마다 부딪치는 영혼까지도 사랑과 용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김)양상 설교를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교회를 가기 전이나 다녀와서 변화가 없었는데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고, 이제는 남 탓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설교 말씀을 다른 누구가 아닌 나에게 적용해서 살 것이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고지고, 나 역시 남편과 대화할 때 서로가 평과나 시끄러운 소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부터 바꿔 것이다.

야! 진짜 교회네

우리는 청지기훈련을 은혜 받을 때로 알고, 위하여 많은 영적 준비를 하도록 권면을 받는다. 이번 청지기훈련에도 우리 교구 장로님과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전도도 하고' 등이 모였. 저 모양으로 은혜 받을 그릇 준비의 방법을 가르쳐주셨다. 그런데 나는 그 중 절반도 실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뇌일 뿐이었다. '우리는 앉으나 서나 늘 주님뿐이지요?' 다른 분들 손 꼭 잡으시고 사뿐히 오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교구로부터 받았다. 나는 이 말씀이라도 꼭 속송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고 내 생각으로 올 듯이 여겨지는 이들을 찾아 권면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한 친구 세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다. 그들은 모두 교인이었다. 한 사람은 강남의 초대형 교회의 장로 부인 권사이고, 또 한 사람은 강남의 유명 교회의 권사이며, 서울의 한 대학 설립자 가족이라 전직 대학 재단 이사장이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멀리 않은 교회의 교인이었다.

예배가 끝난 후 네 친구들은 모두 '야! 진짜 교회네.' '정통이네.' '목사님의 말씀이 진짜야. 어쩌면 군더더기 하나 없이 진리만 말씀하신다'라고 은혜를 표현하였다. '충현교회는 말씀 수준도 높고, 교인 수준도 높은 것 같아. 정말로 안정되어 있어 보여,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진지하다.' '나는 언뜻 뒷자리를 보니 대학생 같은 젊은 남성이 꼼꼼히 말씀을 받아 적으며 듣고 있더라. 그래서 하도 귀해 보여서 얼굴 좀 보려고 다시 한 번 물어보았단다.' '찬양 수준이 너무 높아. 나는 우리 교회 오랜 찬양대원인데 이 책자에 나온 찬양은 아는 게 별로 없더라.' 초대형 교회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보다는 홍보,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이 주 전략인 것 같아 느껴질 때가 많았어. 맞아. 교회는 복음만 전해야 돼.' 유대를 나눈 네 친구는 '많은 교회가 떠돌아다니는 복음성가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여기는 찬양이 너무 성스럽네. 이게 다 훈련이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야'라고 말했다.

나는 이들이 은혜 받은 것에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들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했다. 위임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고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들으라'고 하신 말씀에 내 마음이 쫓겨나면서, 나는 주재념이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이 충현을 넘어 온 교회로 퍼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한 때는 말씀이 풀 같이 달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 떠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잠들어 가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훈의(권사, 1교구)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예아리는 그 예아림으로 너희가 예아림을 받을 것이며 되 칼오리니 마가복음 4:24



권미숙(권사, 6교구)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우선 감추어졌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죄인인 저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청지기훈련을 맞이하면서 저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꼭 참석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부랴부랴 회사를 끝마치고 예배 중간쯤 참석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이번 청지기는 휴가를 써서라도 집중해서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청지기훈련에 참석하였습니다. 아니 저에게 절실한 말씀이 필요하였기에 청지기훈련을 사모하며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계속해서 쫓겨오는 전화를 저를 청지기훈련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위임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아직도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세상에 분주해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며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부인데,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찬양을 부르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함을 감사하며 죄인인 저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의 강도는 저입니다’ 고백하며 남을 판단하고 ‘누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텐데’ 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옛날 주가 걸으신 거룩한 길을 생각하며 겻새마네 동산에서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갈보리의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충만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나타낼을 감사드리며 주의 복음을 듣고 감추어져 있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인 저에게 나타내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김정민(청년1부)

청지기훈련은 갈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늘 가던 청지기훈련은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느끼고 오게 해준다. 특히 이번 청지기훈련 때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오게 된 것 같았다. 먼저 짧은 예배 후 위임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다. 이번 청지기훈련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가려서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를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인으로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그저 하나님의 일상처럼 교회를 다녔던 것 같다.

그러나 이번 말씀으로 나는 새로운 것을 느꼈다. 앞으로 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내가 들은 말씀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고, 또 전국에 대해서도 알게 해 주고 싶다. 말씀 중간 중간에 ‘충현찬양곡집’에 있는 찬양들을 부르는 시간도 매우 좋았다. 찬양을 통해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 되는 듯 함을 느꼈다. 다음 청지기훈련 때는 더욱 말씀을 새겨듣고 더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 김예림(중동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만이

점점 더 내 안에 채워져 가는 주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기록할 수도 없고, ‘십자가의 사랑’ 어느 날 소리 없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셨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음에 오늘날 주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집중합니다. 두 마음 속에 더 여전히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또 다시 내 마음을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이 청지기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게 하였고, 복음이 가리었으면 말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는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였고, 이제 너희의 해아리는 그 해아림으로 너희가 해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앞에 복음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었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외에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바라보고 있었음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복음,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은혜, 간절함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게 되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성령께서 더 부어 이제 알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리스도의 참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과 은혜와 기쁨의 대 축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으로 시작된 제3차 청지기훈련은 정말 말씀과 은혜와 기쁨의 대 축제였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막 4:24)는 말씀 속에서 위임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기도하고 소망했던, 정말로 생명의 메시지가였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었으면 할 만류의 귀하고 강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약속하였고, 복음서를 통하여 그 이루신 것을 보여주시고,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약속하신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사역을 바라보게 하였다.

이정철(성도, 22교구)



그래서 주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청지기훈련에서 선포하신 목사님의 말씀에 저의 마음이 또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관촬은 들을 만한 소리들을 즐겨했던 저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보람직하고 먹음직함 것들에게 현혹되었던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은 복음과 진리에서 떠난 것들이었고, 세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 성경 말씀을 가장한 소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단순한 그 사실에 진실로 눈물 흘리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는 다시 한 번 확신에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진정한 복음을 더 많이 들어야만 해!’라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확신에 차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말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저는 죄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 흘릴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언연식(장로, 18교구)



두려움은 사라졌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왜 불교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느냐면서 위협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우리를 쫓아내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단단히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갔다. 주님은 우리의 사역에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셨다. 두려움은 사라졌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찾아오는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려움 가운데서도 준비해 두신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다.

(이경옥(권사, 20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8일(화) ~ 11월 16일(수)	21교구 3팀	임채봉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2일(수) ~ 11월 9일(수)	8교구 2팀	김광선

선교 일지(1)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날 따라 주보에 써 있는 고등부 단기선교 일정이 내 눈에 크게 들어왔다. 그리고 갑자기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나는 늦었지만 합류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감사하게도 허락되었다. 행복했다. 과거 단기선교를 갈 때마다 개인적으로 통성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떠올랐다. 그래서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싶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선교를 가기로 결심한 것과 동시에 스के줄이 꼬이기 시작했다. 덕분에 준비 기도는 부족해졌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커녕 하루하루 일처리 하나와 정신이 없었다. 거기서부터였던 것 같다. 내가 학생들에게 자주 떠넘기기 시작한 것이.

우리 팀은 중학교 때부터 단기선교를 다녀오기 시작한 아이가 2명, 이번이 2회째인 학생이 1명, 그리고 처음인 학생이 1명으로 구성되었다. 내 기도는 부족했지만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라 나는 내심 기대감이 높았다. 그런데 이 기대감이 문제였다. 아이들의 모습은 나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다. 아이들의 선교를 준비하는 자세는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일었다. 경험이 많다 보니 교회에서 실시하는 심사는 원히 재하고 있었다. 심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든 어떻게 대답하면 통과가 되는지 영악하리만치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개인 영성이나 팀의 하나 된 마음, 팀장님께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상태가 이렇다 보니 나는 준비되지 못한 내 모습을 보지 않고 아이들을 핑계 대며 분노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우리 팀이 탈락되게 해 달라고 온 힘을 다해 열심히 기도드렸다. 그것이 아이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내 간절한 기도와는 달리 우리 팀은 탈락되지 않았고, 스কে줄이 꼬여 출발하는 날까지 일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정에 맞추어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김정민(교사, 고등부)

복음의 능력, 주님의 돌보심

그동안 너무 타성에 젖은 신앙, 나 중심의 무딘 신앙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매달라 있던 차에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되어 단기선교사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였다. 처음 맑은 팀장 직분은 무겁게 느껴졌으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팀원들이 구성되어 그들의 기도와 격려에 힘입어, 팀을 십자가 정병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나라를 영적으로 준비해 나갔다. 선교는 말이나 우리의 지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살벌한 현지 상황을 돌아보니 복음의 능력, 주님의 돌보심이 상상 우리와 함께 계셨다. (배종복 안수집사)

기들은 불교라고 '붓다 붓다' 하면서도 잘 듣고 영접기도 까지 받는 사람들도 많았다. (김승자사 권사)

공산 체재와 불교 세력이 강한 나라에 선교사로 세워져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이 정말 감사했다. 청소년들이 불교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가장 큰 꿈이라니 정말 안타까웠다. 또한 과거에 쓰던 교회 건물이 현재 경찰사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시 그곳에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씨앗이 되어 싹 트고 있 피고 열매 맺기를 기도하며 계속적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길 바랄 뿐이다. (변순자 권사)

22교구 2팀

공산국가라 포교활동이 금지된 나라이고 이미 우리 교회 선교팀이 추방 당한 곳이기도 하다. 목자는 그렇게 복음을 맡겼 전하지도 못하는 곳에 굳이 갈 필요가 있는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복음은 어느 곳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다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말로 위로하며 먼저 기도와 염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사역은 시작되었다. 첫날 정탐 겸 사역을 하는데 전혀 문제를 느낄 수 없었고, 이후 계속된 사역에서도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찬양하는데도 무리가 없었다. 농촌인데도 의외로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들도 많았으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한 번도 느껴지지 못했다. (강예림 권사)

선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선교를 위하여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였는지,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였는지 생각해 보았다. 다스금 마음을 추스리며 복음을 잘 전하고 돌아오게 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준비하였다. 출발 전 팀장님께서 현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그곳에 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보면 선교의 중요성을 깨달고 모든 것을 순종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로 나아갔다. (김영자 집사)

'무엇을 주저하느냐'라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준비하게 되었다. 처음은 그랬다. 그 나라는 사회주의 공산국가이며 불교가 90% 이상인 나라로, 앞서 2개 팀이 추방 당한 경험이 있고 포교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여서 어떻게 사역을 하길 원하십니까, 기도로 주님께 먼저 아뢰며 주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이 성취되도록 지혜를 모았다. 첫날은 정탐을 했다. 팀원 모두가 차로 이동하는 중에도 찬양하고 이 땅이 복음의 땅이 되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갔다. 어느 누구 불평하지 않고 웃으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동할 수 있었다. (김정일 집사)



11월 18일

추수감사 찬양축제

온 성도가 드리는 감사의 하모니

감사의 달, 11월이 시작되었다. 11월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 2011년 추수감사절은 그 어느 해보다 특별할 것 같다. 온 성도가 악기를 가지고 함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추수감사 찬양축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 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감사의 덩어리를 옮기고 있는데, 그 중의 한 명인 찬양위원회 김진환 집사를 만났다.



Q. 추수감사 찬양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A. 추수감사절을 맞아 전교인, 즉 유아부부터 본 예배 찬양대, 오케스트라 그리고 온 성도가 악기와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날입니다.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예배대부 및 각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간과 온 회중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Q. 온 회중이 다 함께 찬양하는 곡에는 어떤 곡들이 있나요?

A. 전교인이 함께 찬양하는 곡은 총 6곡으로 <하늘의 찬송>, <생명의 양식>,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 <하나님의 진리 등대>, <거룩한 성>입니다. 이 중 <하늘의 찬송>은 오메라에 나온 간주곡을 누가 북을 2장에 기조에 가사를 붙여 편곡했는데, 선율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Q. 어떤 찬양축제는 1인 1악기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악기 중 독특한 악기가 있다면?

A. 우리 교회에서 특색이 있는 악기를 들자면 핸드벨, 만도린, 오카리나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기들은 외부에서는 보기 힘든 악기

들이네요. 오카리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주축이 되어 열심히 지도를 받고 있는 악기이기도 합니다.

Q. 찬양축제 때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따로 한다고 들었는데, 연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 아카데미를 통해 지도를 받고 있으며, 금요찬양집회가 끝난 후 한 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목사님이 지도에 주시고, 많은 분들이 연습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Q. 찬양축제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A. 하나의 행사가 아닌, 모두 함께 모든 악기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축제는 어느 악기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악기가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에서는 악기뿐만 아니라 소리를 내는 모든 악기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리코더나 트라이앵글도 좋습니다. 모든 악기를 가지고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찬양집회 교구작석 변경

*11월 4일(금요일)부터 시행

본당 1층 좌석배치

강 단					
6 교구	13 교구	1 교구	9 교구	24 교구	
4 교구	16 교구	17 교구	22 교구	14 교구	2 교구
방문 자석	예배 다부			10 교구	10 교구

본당 2·3층 좌석배치

18 교구	12 교구	11 교구	23 교구	7 교구	8 교구
20 교구	15 교구	21 교구	5 교구	3 교구	19 교구

장년2부 총동원 전도집회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고백하면서 참 감사하기 때문이지요. 김자혜(성도, 장년2부)

장년2부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주님께 귀여운 쓰임 받는 복음의 종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장년2부를 더욱더 십자가로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몸 된 중언교회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홍정희(권사, 장년2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전도인데, 아직 실천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신앙 생활을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물어 보고 믿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께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갈 수 있어요. 우리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 나누며 함께 예수님 믿어요"라고 하면 감사하게도 대부분 잘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앞으로 때를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중언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2903	정효현	양육반	23	이기준	2917	김현주	양육반	21	조복선
2904	이성철	양육반	1	김병재	2918	조미리	양육반	22	김영희
2905	우진선	초등1부	17		2919	송은영	양육반	14	전슬기
2906	김보우	초등1부	13		2920	전영심	양육반	3	최명희
2907	김보아	초등1부	13		2921	조연경	청년1부	6	
2908	이금심	양육반	16	이수자	2922	송광숙	양육반	11	송광주
2909	안현지	양육반	3	이인수	2923	임우송	예비다부	25	변창대
2910	황재길	1	이연진		2924	여수민	양육반	2	우병희
2911	조경희	1	이인선		2925	김은주	양육반	13	이경선
2912	라미미	9	정길남		2926	김현아	양육반	19	이민복
2913	이명숙	양육반	21	이승연	2927	이태영	양육반	23	
2914	유혜선	양육반	19	김효분	2928	권태경	청년1부	18	조연선
2915	황의석	양육반	1	신동욱	2929	정재민	양육반	16	장 작
2916	전소은	양육반	1	신동욱	2930	이지연	양육반	19	권태선

